



전북 순창과 전남 담양을 잇는 명품 메타세콰이아길 조성 사업인 '순-담 메타세콰이아길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 43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사진은 순창 메타세콰이아길 구간. <순창군 제공>

# 순창-담양 명품 관광로드 만든다

### '순-담 메타세콰이아길 프로젝트' 시동...2020년까지 추진 43억원 투입...메타세콰이아길 연결·투어버스 운영 등

전북 순창군과 전남 담양군이 '순-담 메타세콰이아길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과 담양군은 지난 8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순창-담양 간 광역형 관광개발사업인 '순-담 메타세콰이아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순창과 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담양-순창 간 단절

된 메타세콰이아길을 연결해 한국의 명품 관광로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담양에는 8.5km 메타세콰이아길, 순창에는 3.2km 메타세콰이아길 조성돼 있다. 하지만 양 지역을 잇는 경계지역 9.6km 구간이 끊겨 있다. 이 길을 잇는 사업이다. 국비 23억원을 포함해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3년간 진행한다. 또 메타세콰이아길 중간에 있는 순창 강천산~고추장민속마을~담양 메타세콰

이어길~죽녹원~담양호를 잇는 투어버스로 운영한다. 양 지역의 관광거점인 순창 고추장마을과 담양 메타세콰이아길에는 이 지역의 관광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투어스테이션을 조성한다. 양 기관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 편의 도모는 물론 순창·담양을 하나의 문화관광권으로 묶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간담회를 열어 이 사업을 통해 경계를 넘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역연계 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합의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담양은 700만, 순창은 300만명이 오는 전남·북 관광거점으

로 5년 내에 양 시군이 협력해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자"며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도 "담양과 순창은 좋은 자연환경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돈버는 관광, 더 좋은 경제, 더 행복한 담양·순창을 만들어 나가자"고 협력을 다짐했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 협력을 통해 2018년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방문의 해에 순창·담양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정영기기자 jyg@kwangju.co.kr

# '춘향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 수출농업 경진대회 대상

### 30%가량 일본·대만·호주 등 수출...외화 35억원 획득

남원 춘향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회장 오범목)가 농촌진흥청 주관 '2017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농식품 수출현장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하기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2개 수출 경영체가 참가해 1차 심사를 거쳐 7개 업체가 본선에 올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춘향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는 지리산자락의 여름철 준고랭지 기상을 활용해 50농가가 27ha 농장에서 연간 3500여톤의 파프리카를 생산, 1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생산량의 30% 가량은 일본·대만·호주

등에 수출, 35억원의 외화 획득을 하고 있다. 파프리카 공동선별 작업(운봉농협 산지 유통센터)을 통해 연 5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작목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생산자재 공동구매와 공동육묘장을 활용하고 있다. 홍수 출하를 막고자 3차레에 걸쳐 분산정식을 하고, 모든 회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파프리카 수출자조금을 적립해 전문 재배기술 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가격 폭락시 수급조절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프리카 선도 유지를 위해 수확

후 바로 에너지리해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도 한 몫 했다. 기술센터는 수출 파프리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용 저압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난 2012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 맞춤형 정밀농업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켰다. 수출 통관절차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충방제용 천적 공급과 연 2회 이상 안전선 교육 실시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내년에 파프리카 국내 육성 품종인 '헤스티아' 재배를 늘리고, 파프리카 직접 정식 기술을 보급해 경영비 절감을 지도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 개최

부안군, 장기자랑 등 다채 400여 부안군 자원봉사자들이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부안컨벤션웨딩홀 2층에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눔실천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봉사 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 시상과 2017년 자원봉사 활동 영상 보고,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중규 부안군수는 "자신의 생업과 생활 속에서도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나눔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부안=김민준기자 jun@

# 익산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준공 초읽기

### 내년 3월 제품 본격 생산

귀금속 보석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익산시 왕궁면 보석가공단지에서 세운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가 준공을 앞둔데 관심이 쏠린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는 1만2000여㎡에 지식산업센터와 디자인센터 등을 갖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귀금속 제조업 공장(26실), 교육실, 장비실, 디자인사무실, 구내식당,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선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귀금속·보석

의 기획·디자인·제품 생산판매 등을 집적화하고 인근 주일팰리스·보석박물관·보석 테마 관광지와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입주업체가 클러스터의 디자인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사용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내부 마무리를 하면 귀금속 보석 업체들이 내년 3월부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며 "귀금속 보석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향토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 군산시 '어린이 맘껏 광장' 만든다



### 유니세프와 전국 최초 조성

### '어린이 권리' 인식 개선 노력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한다. 군산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와 공동 조성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맘껏(권리)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회(사진)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정희상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장, 박성현 재경군산시향우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맘껏 광장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고회에서 군산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에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어린이 맘껏광장을 조성, 공공시설에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상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또 현장 분석, 어린이 참여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표하고 표현하며 우리를 비추어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구상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내년 9월 예정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국제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 맞춰 '어린이 맘껏 광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 맘껏광장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고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어린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어린이 권리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현 재경군산시향우회장은 어린이 맘껏 광장 조성 등 어린이 행복사업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갈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만한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골계이트루전 전 2192㎡ 다용도기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대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전환 4억

**투자·매도·교환**

- 충청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속적합 60억
- 해남 신이면 5182㎡ 식품공장-전원주택단지 감정25억선 매도13억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사미리 산 70290평 3억9천
- 함평 해보면 2중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용 적합 7억
- 금당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들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42천
- 함평 2중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델 등 30억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무안군 청계면 산 16166㎡(4890평) 공사가 5억5천5백 매도 5억6천5백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원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델 땅 364㎡ 객실17 달랑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 40,000m<sup>2</sup>

- ▶매매가 상당 후 결정
- ▶분할 가능

##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명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문의/영업문의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금산구 하남신당아파트 45(5층)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

##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